개교 10주년 특집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0호 2019년 7월 25일(목)/계간

발행인 ·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개교 10주년 기념 축사

02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02 이차영 괴산군수

03 박덕흠 국회의원

03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03 박병준 총학생회장

03 교원 하계 워크숍 우수강의상 및 중원연구상 수상자

Campus News

04 충북도 주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

04 '개교 10주년 기념식' 개최

04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력대학 선정

04 충북지방경찰청과 '경 · 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경찰 업무협약' 체결

05 한국공항공사 항공 관련 '청년 일자리 설명회' 개최

05 소방방재공학전공 이창희교수, 중형 국가R&D 사업 선정!

05 상생교양학부, 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특강

05 염상국 전 청와대 경호실장 특강 개최

Students News

06 우리 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오픈캠퍼스' 재학생 8명 수료

06 연극영화학과, '제27회 젊은연극제' 참가

06 정의준 졸업생, 학사사관 1호 'Top Cadet' 선발 영예

06 의료뷰티케어학과, '2019 IBEA 국제 미용대회' 참가학생 전원 수상 쾌거

07 하늘을 향해 꿈을 펼치다 – 타이항공 견학

Social News

08 협약식

08 '괴산장터 3.19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08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08 연극영화학과,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에서 재능 기부

09 그날의 함성

10 중원은 세계로 나눔을 공유해요!

JWU in 人

12 과학과 예술의 선도주자 김성희 교수님을 만나다

12 진정한 중원人 – 정의준 동문 인터뷰

Life in JWU

13 JR 토크쇼, 안녕하세요

14 내 교양을 부탁해

15 풋풋한 동아리와 함께 추억 만들기

Our Story

16 꿈을 향한 발돋움

17 중원대학교의 디스패치 Jungwon Reporters

Career

18 공부의 신

18 한국전력공사(KEPCO) 2019학년도 공개채용 최종합격!

19 비교과 어디까지 알고 있니?

Culture

20 미슐랭 in JWU 2

10th Anniversary

21 중원대학교와 함께 지나온 10년

23 축제로 본 10년 중원의 어제. 오늘. 내일



JUNGWON 10th ANNIVERSARY



총장 직무대행
김두년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여러분!

백두대간 정기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중원 괴산에서 중원대학교가 야심차게 창학의 발걸음을 내딛은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싱그런 푸르름 속에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 중원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상생인류의 새문화를 이루기 위해 해원상생의 건학이념으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중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교육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중원대학교가 있기 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교수님 직원선생님 학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중원가족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학기관가 인증평가, 간호교육인증 평가,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인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을 모두 획득하였고 충북도내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학생들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교수님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고 각종 인증평가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대학에서 이뤄낸 크나큰 업적들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 학생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화합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중원가족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오늘날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중원대학교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교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유례없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진학율의 감소 등으로 모든 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원대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열정적이고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중원대학교가 그간 이뤄온 성과와 눈부신 발전에 자긍심을 느끼며, 세계속의 명품대학으로 우뚝 설 중원대학교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설레고 더 큰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위기는 곧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대학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은 중원대학교에서 지난 10년간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이 집을 꽉 채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중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두년



괴산군수 **이차영**

중원대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괴산군민과 더불어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원대의 10년 역사는 단순히 한 대학의 역사가 아닙니다. 중원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해 충북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전국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수준 높은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입니다.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성실, 경건, 신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꾸준히 발전한 배경에는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재단 등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원대학교를 말할 때 앞에 괴산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는 합니다. 그만큼 중원대가 괴산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원대학교는 우리 괴산과 함께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대 교정은 한남금북정맥 금봉산의 힘찬 기운이 뭉쳐진 곳으로 유교상징 명덕산, 불교상징 성불산, 도교상징 도덕산이 감싸고 있는 길지로 지속발전은 물론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지역 대학들이 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괴산 중원대 만큼은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 역시 중원대학교가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개교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년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중원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명품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덕흠**

제 20대 국회의원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존경하는 중원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세계를 품은 작은 지구촌,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 중원대학교의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의 시작, 함께 내딛는 ONE MORE STEP!'을 캐치프레이즈로 제8대 총학생회를 힘차게 이끌어나가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박병준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 여러분과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해원상생의 설립 이념과 성실, 경건, 신념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적 아래 인재양성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인간교육과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특별한 교육연구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원대학교가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실현시키고 당당한 중원의 젊은 지성으로 양성해 나가시며 세계로 웅비하는 상아탑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끝으로 지난 10년간 중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과 100년의 중원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며 학우 여러분께서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품성을 갈고 닦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신동운

중원대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중원대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중원대학교가 우리 괴산군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변화 시켰습니다. 어두웠던 시가지를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바꿔 놓았고, 사람 없던 거리가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었음을 새삼 상기하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세계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개교 10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관평가 인증, 간호교육인증 평가,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인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을 모두 획득하였고, 충북도내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해원(解原) 상생(相生)'이라는 건학이념 아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의 교육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학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중원 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괴산군의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많은 발전으로 우리 괴산군민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중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괴산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원대학교가 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면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 중원대의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이를 거울삼아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박병준

배움의 전당인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원대학교를 충북 지역 최고의 대학교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신 학생 여러분,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괴산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근대 학교의 효시가 사학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우리 교육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도 역시 사학으로서 그 공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원대학교는 우리 괴산 지역 사학의 요람으로서 지역의 교육 발전은 물론 국가의 동량을 길러 내는 큰 몫을 담당해 왔으며 이제 어언 10세의 성장기로 우뚝 선 충북 괴산의 자랑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중원대학교의 발전은 학생 여러분의 노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 여러분과 괴산 지역 주민 간의 상생으로 중원대학교는 지역의 크나큰 발전을 가져왔고 괴산하면 중원대, 중원대 하면 괴산이라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큽니다.

재학생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의 직접 걸어오신 부흥의 발자취를 교훈 삼아 더 높이 더 큰 꿈을 키우기 위한 엄숙한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중원대학교에서 더 높이 도약하여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중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남은 대학 생활을 더욱 당당하고 슬기롭게 보내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주년을 맞은 깊은 감회와 기쁨에 젖어 있는 모든 분과 이 감격을 함께하며 서기 어린 중원에 터를 잡은 인재의 요람 중원대학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교원 하계 워크숍 우수강의상 및 중원연구상 수상자



우수강의상 수상자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



전기전자공학전공
이종필 교수



간호학과
김종임 교수



항공서비스학과
임지은 교수



글로벌언어교양학부
류다영 교수

중원연구상 수상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서영교 교수



국제통상학과
민승희 교수



보건행정학과
양종현 교수



항공재료학과
한태희 교수



항공정비학과
전용호 교수

우리 대학, 충북도 주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충북도 주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이연숙)가 최근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2019년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내 대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통한 취업률 향상과 청년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공모한 '2019년 대학생 취업역량강화사업'에 중원대는 '2019 중원 뛰어라, JOB아라!'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었다.

중원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취업동아리 △학과별 맞춤식 기업탐방 캠프 프로그램 △자격증 교육 △취업박람회 단체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북도내 기업에 맞는 역량을 기르고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연계프로그램으로 사전준비 설명회, 해외인턴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생들의 충북도내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충북권내 취업박람회 참가와 기업 맞춤형 취업추천 등 도내기업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이연숙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본교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충북도내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졸업예정자들의 도내 취업으로 충북지역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작년 충북도내 4년제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려 명실상부한 취업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편집부〉

우리 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식' 개최



▲개교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과 교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5월 7일 본관 CEO룸에서 '개교 10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교직원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국민의례, 공로상 수여, 총장 기념사, 교가제창, 폐회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근수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홍기 경영학과 교수 △김용진 학생장학팀장에게 대학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해 공로상을 수여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우리대학이 지역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교 10주년을 맞아 본교와 괴산군이 상생하여 발전하기 위한 '함께하는 중원'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본교 구성원과 괴산군민 모두가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중원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축제를 이어갔다. 〈편집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력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간 연계협력형)'의 협력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충북대가 선도대학을 맡고 충북도내 중원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원대는 '공공서비스 ICT 인력/ 가스·에너지 안전' 분야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한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7개 지자체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등 14개 공공기관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11억 5천만원(국고 8억 5천만원, 지자체 대응자금 3억원 정도) 등 총 5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충청권 지역의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충북혁신도시 맞춤형 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충북지방경찰청과 '경 · 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경찰 업무협약' 체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우리 대학을 비롯한 도내 17개 대학과 충북지방경찰청이 경 · 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경찰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맨 끝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

우리 대학을 비롯한 도내 17개 대학과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10일 경·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과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대학과 경찰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등 정기적 학술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전문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서 및 대학 시설이용 협조, 교육비용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인적 자원을 치안시책에 접목시켜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건전한 사회질서 실현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남택화 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찰의 치안 정책과 대학의 학술 분야 지식 교류를 통해 충북도내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치안문제의 공동대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경찰행정학과는 2010년 신설돼 2014년도에 경찰공무원 첫 합격자가 나온 이후 꾸준히 경찰공무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간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한국공항공사 항공 관련 '청년 일자리 설명회' 개최



▲대강당에서 '한국공항공사 KAC 청년 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이 5월 2일 오후 4시 교내 대강당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 사업 및 신규 채용 현황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KAC 청년 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공항공사(KAC)가 항공 관련 학부를 운영하는 전국 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항공관련 취업 설명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달 가톨릭관동대학을 시작으로 중원대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항공대 교수 및 재학생, 학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육성, 항공기 조종사 양성, 항공 정비사업, 항공장학재단, 해외공항사업, 신공항건설사업 등은 물론 항공분야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공덕 한국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실장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보였고, 그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자신의 목표하는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취업, 창업 관계자와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항공대학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항공대학 학생들이 본인이 꿈꾸는 취업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항공분야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 美제 델타 퀄리플라이트 항공대학,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등 여러 항공대학을 비롯한 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소방방재공학전공 이창희교수, 중형 국가R&D 사업 선정!



우리 대학 이창희 교수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 및 최적운영기술개발사업'의 '환경시설물 침수피해예측과 영향평가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 신규 과제에 선정돼 오는 2021년까지 약 15억원(2019년 4.6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본 과제 참여를 위해 에스제이엠엔씨(주), ㈜신우엔지니어링, ㈜리얼리티랩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과 함께 환경시설물에 대해 PC기반의 침수피해 예측 모델 및 시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위험 환경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및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희 교수는 "이 과제를 통해 피해발생 파급 영향이 큰 환경시설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측 및 영향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침수 시나리오별 환경시설 취약시설물 점검리스트 도출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개발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시설 침수피해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 예방능력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상생교양학부, 조경태 국회의원 초청 특강



▲조경태 의원이 '21세기 정치의 과제' 특강을 하고있다.

우리 대학 상생교양학부가 5월 21일 14시 잉글리쉬 홀에서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정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정치관과 비전을 재고하고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조경태 의원은 "청년들의 현실정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근본적인 정치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청년들의 정치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시절 치열하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하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학생들과 현실정치의 여러 사례를 들면서 서로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한민혁 학생(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4학년)은 "현실적인 문제에 치여 정치에 큰 관심 없이 지내왔다"며 "오늘 특강을 계기로 한국정치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원대는 매학기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명사초청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지식과 글로벌마인드 개발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편집부〉

염상국 전 청와대 경호실장 특강 개최



▲염상석 경호실장 특강을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5월 28일 염상국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초청해 '큰바위 얼굴 리더십'을 주제로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과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염 전 실장은 역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국가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 강의했다. 이어 특강에 참여한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의 질의응답, 경호실장으로서의 에피소드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강연에 참여한 김신우 학생(경찰행정학과 14학번)은 "특강을 듣고 경호원들의 고충과 노고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26년간 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하시며 국가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연에서 염 전 경호실장은 "저는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최고의 경호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6년간 노력해서 경호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인 경호실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며 "여러분들도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꿈에 도전하셔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염상국 경호실장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해서 1982년도에 청와대 경호실에 첫발을 들였다. 그 후 청와대 경호실에서 26년 근무하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으며 2007년 13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역임했다.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우리 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오픈캠퍼스' 재학생 8명 수료





▲'KGS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우리 대학 재학생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재학생 8명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한 6월 14일 'KGS 오픈캠퍼스(Open-Campus)'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오픈캠퍼스는 정부, 충북도, SK충청에너지서비스, 대학(중원대·우석대·충북대·한국교통대), 공사가 협업으로 대학생들을 교육해 기업니즈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작해 13주간(매주 월요일)에 걸쳐 운영 됐으며, 도내 4개 대학 대학생 36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대학 재학생 8명이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견학과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NCS 채용특강, 정부정책 및 실무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임현준(신재생에너지자원 15학번)학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해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타 대학 학생들과 경쟁도 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연극영화학과, '제27회 젊은연극제' 참가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공연 장면.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제27회 '젊은연극제'에 참가했다.

젊은연극제는 1993년에 처음 개최된 최대 규모의 대학생 연극 축제이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젊은연극제'는 '눈부신 젊은, 내일의 연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 50개 대학의 연 극 관련 학과가 참여하고, 서울 대학로에 소재한 9개의 극장에서 대학별로 공연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의 이번 연극제 참가작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낭만희극 "한 여름밤의 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한 공연으로 서울 대학로 물빛 극장에서 6월 7일~8일 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태규 학과장은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연극의 거장,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여 야심차게 준비했으며 연극에 관심있는 학부모, 타대학 전공 학생들, 연기전공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2014년 이후로 젊은연극제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에 참가하여 재능을 기부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편집부〉

정의준 졸업생, 학사사관 1호 'Top Cadet' 선발 영예

(경영학과 15학번)



경영학과 졸업생 정의준(15학번) 소위가 6월 28일 학군교 학사사관 64기·단기간부사관 40기 통합 임관식에서 '19년 최정예 300전투원' 중 학사사관 1호 'Top Cadet'으로 선발되어 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탑 카뎃은 육군이 시행 중인 '최정예 300전투원' 선발 계획에 맞춰 체력과 사격, 전투기술 능력 등을 구비한 우수 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대회다. 정의준 소위는 학사 541명(여군 76명), 단기 간부 30명(여군 1명 포함) 등 총 571명 가운데 '2019 최정예 300 전투원'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 소위는 "Top cadet 이라는 목표가 생긴 후 강도 높은 훈련과 식단조절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단련하며 육군 장교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한다)의 자세로 전우들과 단합해 어떠한 순간에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믿음직한 소대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은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멋진 장교로 거듭난 정의준(22) 소위가 대견하다"며 "항상 중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군 병과 별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일선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12면

의료뷰티케어학과, '2019 IBEA 국제미용대회' 참가학생 전원 수상 쾌거



▲의료뷰티케어학과 학생의 대회 모습.



▲의료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뷰티케어학과(학과장 문지선) 학생들이 5월 11일 서울 코엑스 1층 A홀 대회장에서 개최된 '2019 IBEA 국제미용대회'에 참가해 10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만,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참가한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 의료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의 세계 뷰티 기술 습득과 뷰티시장 학술 교류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 의료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은 대회 30개 종목 중 메이크업(웨딩), 창작 펌와인딩 2개 종목에서 3학년 김건우 학생이 국회의원상을, 메이크업(웨딩) 종목에선 4학년 류한슬 학생 그랑프리상 차지했다. 이 외에 다른 학생들도 금상, 은상 등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김건우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의 전문지식도 배우고 좋은 경험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대회 참가를 도와주신 학교와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지선 학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내 뷰티산업의 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의 전공역량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킨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학생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뷰티케어학과는 2015년에 신설된 학과로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재능봉사와 고추축제, 119 안전문화 축제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편집부〉

하늘을 향해 꿈을 펼치다!

- 항공서비스학과 타이항공 견학 -

진정한 승무원이 되려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수용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하겠죠?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항공서비스학과에서 태국 타이항공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실습과 함께 태국 문화들을 접하고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적인 서비스 마인드 감각을 기르고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인천공항 셀프업무



전공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공학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단말기에 직접 항공권을 체크인 후에 자동 수화물 위탁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셀프체크인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여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체크인 할 수 있었고 셀프로 수화물을 위탁하여 공항의 최신 시스템의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줄을 서서 소비하는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타이항공사 교관 강의



5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타이항공의 승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태국의 인사예절과 기본 매너 더불어 역사까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업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됨으로 인해 영어실력도 점검하고 동기부여도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승무원 교육센터 방문과 기내 서비스 체험



승무원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태국의 승무원 교육 진행 방식과 기내 서비스 과정을 체험하였습니다. 기내에 설비된 비상장비 리스트를 숙지하고 익히며 승무원의 역할과 이미지메이킹, 데모, 식음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어 트레이닝



타이항공 트레이닝 센터에는 대표적인 비행기 기종마다 비상 도어가 준비되어 있어, 각각 다른 기종에 따른 항공기 도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구조를 익히고, 도어를 여는 방법도 익히고, 비상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상 안전 훈련



객실승무원의 훈련 중의 기본인 수상 안전 훈련을 통하여 각자 수영하는 방법, 서로 도와주는 방법, 구명보트에 올라가는 것 등 외에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이항공 구내식당



타이항공 본사 구내식당에서 실제 승무원을 비롯한 현직 직원들이 식사를 하시는 곳에서 식사카드를 대여 받아 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태국 현지의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여 새로웠고 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Escape Slide)





흔들리는 동체에서 감압 현상 체험과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하며 비상 장비 사용과 비상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실제 비행기 모형에서 이착륙과 터뷸런스 등의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시뮬레이터 탑승 시승 시간



타이항공이 가지고 있는 전 기종의 조종석 시뮬레이터를 관람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비행기 내부도 견학을 했는데 한국에 없는 많은 기종의 비행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이착륙과 터뷸런스 등의 비상상황에서 조종해보고 실제 본사에서 엔지니어링 등을 배우는 인턴분들과 Q&A 시간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타이 항공 훈련 증명서 수료



체험을 마친 후 타이항공 트레이닝 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직접 수료증을 전달받으며 앞으로의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성장을 응원해주시는 교관님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닌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PHOTO NEWS 협약식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와 에너지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6월 13일 충북대학교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도내 17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와 함께 에너지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북지방경찰청과 대학-경찰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을 비롯한 도내 17개 대학이 충북지방경찰청과 경 · 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경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업무 체결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글로벌 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진에어와 산학협력을 위한 항공기자재 기증식 행사
우리 대학이 (주)진에어와 산학협력을 위한 항공기자재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



▲ 중국 신양항공직업대학과 업무 체결
국제교류원이 서울사이버대학과 한국어교육실습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왼쪽), 김현주 국제교류원장

우리 대학 '괴산장터 3.19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김두년(맨 왼쪽 두번째) 총장 직무대행이 '3.19 만세운동' 거리행진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이 지난 3월 19일 괴산읍 홍범식 고택 일원에서 열린 '괴산장터 3.19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두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원대 재학생, 초중고 학생, 보훈가족, 각급 기관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은 일제 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기념식은 충북 최초로 시작된 역사적인 '괴산장터 3.19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00년 전 그날에 맞춰 괴산문화원,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시·군 순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가행진을 통한 만세운동 재현, 다양한 부대(체험)행사가 진행됐으며 기념식 후에는 홍범식 고택을 출발해 괴산 옛 장터를 거쳐 괴산문화예술회관에 이르기까지 1.4㎞ 거리를 행진하며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재현했다. 특히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공연과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의 페이스페인팅 봉사활동은 행사를 더욱 빛내주고 참석하신 지역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관련기사 09면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가 '제1기 외국인 유학생 치안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 괴산경찰서(서장 이유식)가 4월 29일 괴산경찰서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19년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김현주 국제교류원장, 이유식 괴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는 중원대학교에 재학중인 베트남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치안서포터즈는 외국인 밀집지역, 통역지원, 범죄예방 캠페인 등을 경찰과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응웬두안(베트남, 20세)은 "유학생활 중 치안서포터즈 봉사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유식 괴산경찰서장은 "중원대학교는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캠퍼스 안전순찰대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난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2018 충북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연극영화학과, 제13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서 재능 기부

연극영화학과가 지난 5월 31일 ~ 6월 2일까지 청주 초정리에서 진행된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세종, 초정에 물들다"에서 조선 유람단으로 극단으로 참가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극영화학과는 초정약수 축제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재현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메인 무대에서는 온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 1일 진행된 어가행렬 재현행사에서는 '격쟁'을 연출하여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하는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현장을 달궜다.

이태규 연극영화학과장은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쌓은 예술적 역량을 지역주민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및 영화 공연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매년 '찾아가는/찾아오는 연극영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에 참가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등 연극, 영화 등 전공영역에 있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편집부〉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제13회'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서 재능 기부공연을 하고 있다.

그날의 함성

– 괴산 3.19 만세 운동의 숨은 주역 –

100년 전 1919년 3월 19일 충북 최초로 시작된 괴산 장터의 3.19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홍범식 고택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괴산 주민을 비롯한 2000여 명이 참여한 큰 행사에 누구보다 행사를 빛내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한정수 교수님을 비롯한 재학생들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3.19 만세 운동을 빛낸 숨은 주역들을 만나 봅시다.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홍명희 생애에 대한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학과 김형우 대학원의 공연 모습.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페이스페인팅 재능기부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중원대 학생들이 열심히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학과 대학원 김형우



3.19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홍명희 선생님의 생애를 연기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중원대 학생으로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19 만세운동에 참여한 소감?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홍명희 선생님 연기를 하는 것이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홍명희 선생님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대본을 짜면서 홍명희 선생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관객들도 나란히 줄을 지어 한손에는 태극기 띠를 두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뭉클했습니다. 몇몇 분은 감동적인 모습에 눈물도 훔치셨는데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연극영화과 한정수 교수님



3.19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과 뜻깊은 행사에 참여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망설임 없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만세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흠이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다행히 관객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제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뜻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 저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3.19 만세운동에 참여한 소감?

우리 대학 재학생들과 같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공연을 준비해서 재미있었고 보람찼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쌓은 예술적 역량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 교수로써 너무나 자랑스럽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슴 뜨거웠던 순간들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100년은 선조들의 위대한 행보로 지금의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미래 100년은 후손들인 우리의 힘으로 올곧게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와 학생들의 동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예경호전공 19학번 이송헌



3.19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을 통하여 3.19 만세운동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년 전 이곳에서 3.19운동이 있었기에 100년 후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밝은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19 만세운동에 참여한 소감?

100년 전 3·19 만세운동에 괴산 인구의 10~15%가 참여했고 20~30대 농민과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만세운동에 참여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상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0년 전 그날의 대한 독립 만세운동을 되돌아보게 한 뜻깊은 행사로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융합디자인학과 16학번 윤민솔



3.19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과에서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저의 작은 재능을 통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3.19 만세운동에 참여한 소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애국심과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키는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행사에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으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공연은 당시 가슴 아팠던 역사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호국선열들의 항일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 끝내 제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뭉클함을 분명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20호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중원은 세계로 나눔을 공유해요!



네팔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중원대학교 사회봉사단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네팔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봉사를 떠난 학생들은 귀국 후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봉사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환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해외 봉사가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진 순간, 가치관이 변화는 순간을 겪은 것입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발견한 봉사단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소감을 통해 나눔을 고유하고자 합니다.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네팔 아이들과 풍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각자 완성품을 자랑하는 모습이다. 사진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풍선이 여러 개 터지면서 놀라고 우는 학생들이 많았다.



Bishampur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에코백을 보드마카로 꾸미고 있는 중이다.



초등학교 봉사활동 진행 중에 현지 선교사님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주신 점심을 함께 먹는 사진이다.



Bishampur 초등학교의 외벽을 페인트칠하는 사진이다. 염천 건조한 지역이어서 페인트 칠을 하는 도중에 벽이 떼어져 다시 칠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모두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



하트 모양의 비누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던 시간이다.



아직 제대로 위생교육이 없는 나라여서 아이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열심히 손 씻기를 바라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서은 생체의공학과 18학번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봉사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된 것이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이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카트만두에서 많이 떨어진 학교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아직도 눈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신은 아이들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 신발이 덜렁거리고 단추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얼굴에 웃음을 지우지 않고 우리를 격렬히 환영해줘서 고마워요. 출국전날 보육원에 갔을 때 한 아이가 저희에게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했는데 말 못할 감동 자체였습니다. 30대가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경 사회복지학과 16학번



작년에도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지만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치안도 걱정이 돼서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 해외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엇보다 고아원 아이들과의 의사소통문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쑥스러움은 많지만 허물없이 대해주고 마음을 먼저 열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진 지역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줬다면 제 마음의 무거움 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저의 생활태도,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다음봉사 때는 어학실력을 늘려서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주영 간호학과 18학번



이번에 해외 봉사로 가게 될 네팔이 수도, 전기시설도 안 좋고 통신도 잘 안 터지는 나라라고 들어서 과연 가도 안전한 곳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 열흘 동안 경험한 네팔은 상상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숙소이자 봉사할 곳인 고아원은 아침에 눈을 떠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으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줄넘기도 하고 ‘무궁화 꽃’ 게임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제일 가까이서 어울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항상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직접 만든 팔찌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전해 줬을 때는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번 네팔 해외봉사는 내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라 간호학과 16학번



해외에 나가 팀원들과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담당 선생님과 교수님, 함께한 팀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팔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뛰놀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현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풍선인형도 만들어주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수건돌리기도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산 꼭대기 절벽, 히말라야, 잠시 쉬어가던 호수풍경 등 네팔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여운에 남습니다. 이번 네팔 봉사는 앞으로 제가 국내에서 해외로 봉사 영역을 넓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정소희 간호학과 16학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긴 비행시간을 지나 도착하였을 때 '아, 진짜 리얼 이구나' 하며 네팔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위해 외곽지역의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받아 볼 수 없을 것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 손에 이끌려 교실에 들어가 준비해왔던 수업을 하고 나니 긴장감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업 때 만든 풍선 왕관을 쓰고 직접 그린 티셔츠와 하회탈을 들고 와서 자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서 외관을 깔끔하게 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옷과 머리 곳곳에 페인팅이 묻었지만 누구하나 개의치 않고 열심히 칠했습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인트로 꾸민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름다운 초등학교 시절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행복을 보며 나의 행복과 불행함을 비교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험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지며 살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네팔에서 지내는 9일 동안 돈 주고 살 수 없는 뜻깊은 경험을 했고, 스스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과 선생님, 교수님 모두 스스럼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윤솔 보건행정학과 15학번



대학생활이 끝나기 전에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작은 나눔도 주고 왔어요. (웃음) 4학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네팔 아이들에게 제 재능 나눔이 좋은 추억과 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수 간호학과 16학번



낯선 환경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 처음에는 많이 걱정도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한 단원들과도 유대감이 많이 쌓이고 봉사하면서 네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더 힘이 났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웃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고, 함께 웃으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봉사기간 내내 제가 그들에게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위로받고 힐링하고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저의 적성을 살려 의료봉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봉사단원들과도 좋은 추억이 쌓여서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이세영 간호학과 14학번



네팔을 다녀오기 전에는 '봉사를 왜하지? 취업도 해야 하고 나 살기도 바쁜데...”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력서 한 줄을 메꾸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번 네팔 봉사를 통해 저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봉사는 타인도 돕지만 바쁘게 살아온 나를 돌아보게 만든 시간을 선물로 줬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봉사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도전 할 수 있으며 내가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유주호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해외봉사는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거 같습니다. 네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알려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당연시 여기며 살았던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봉사를 통해서 베푸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해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외봉사를 망설이고 있는 학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아현 사회복지학과 16학번



학창시절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라오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베트남, 현재 네팔까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해외봉사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를 꼽자면! 바로 이번 네팔 봉사입니다. 다른 봉사 때 보다 아이들과 한 몸이 되어 즐기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수건돌리기, 무궁화 꽃, K-POP댄스 등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저와 친구들 또 아이들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는 않아도 누구보다 가깝게 마음을 공유했던 9일 이였습니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꼭 네팔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김영찬 간호학과 18학번



여러분! 해외 봉사? 두려우신가요? 지금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해외봉사를 두려워서 못하시고 계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된다', '치안이 안 좋다' 등의 이야기로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봉사활동에 임하는 순간 모든 걱정은 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보육원과 초등학교에서 활동하였는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서 제가 조금만 도와주고 같이만 해도 까르륵 웃으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덕분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힘든 마음은 잠시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펙에 해외봉사가 큰 점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잠시 바쁜 현대사회에서 벗어나 숨 돌리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젖어 함께 뛰놀며 가르치는 봉사활동! 한번쯤은 경험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인솔해주신 교수님과 직원 분들! 그리고 함께 8박9일 동안 고생했던 해외봉사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민 간호학과 18학번



해외봉사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 네팔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내가 실수 없이 봉사들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과 걱정들 덕분에 보육원, 카트만두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 먼저 허물없이 다가와 줘서 저를 비롯한 봉사자들도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봉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언어가 달라도 표정, 행동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표정과 제스처를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였고, 동시에 저희들의 교육봉사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봉사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해외봉사는 저도 모르게 세워 두었던 편견, 고정관념들을 없애 주었고,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의미 있는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봉사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던 동기, 선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20호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과학과 예술의 선도주자

김성희 교수님을 만나다.





과학과 예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언가 거리가 먼듯하면서도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바로 그 과학과 예술을 접목해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선보인 선두 주자가 중원대학교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얼마 전 아리랑 TV에서도 취재한 카본아트의 선두주자 김성희 교수님을 저희 JR이 취재했습니다.

임현준 기자 lhj960918@naver.com

1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생교양학부 소속 김성희 교수입니다. 또한 3D 프린트 융합전공도 맡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밤하늘을 보면서 상상하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예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과학과 예술 융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생활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저에게 한국에 와서 탄소섬유를 접하게 되었고 탄소섬유로 예술작품을 만들게 되어 한국 최초 탄소섬유 작가 카본아티스트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섬유와 3D프린팅을 접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김성희만의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웃음

2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카본아트에 대해 소개한번 부탁드립니다.

'카본아트(Carbon Art)'란 '탄소섬유와 예술의 만남'을 모티브로 예술 장르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탄소가 있었고 인류는 탄소를 사용해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탄소가 예술을 만나 카본아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시작이 되었고 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카본아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 사이아트(Sci-Art)를 공부하던 중 탄소섬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탄소섬유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됐을 때 금속이나 돌, 나무, 흙 등 기존의 소재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매력에 끌렸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작품은 탄소섬유 고유의 성질 때문에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녹슬지 않기 때문에 조형물로는 완벽한 소재입니다.

3 과학과 예술의 융합은 무엇인가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은 과학이지만 그것을 보고 상상화를 그리는 것은 예술이죠. 과학은 실험실에서만, 미술은 화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익숙해진 '편견'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4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시나요?

앞으로는 탄소섬유를 다양하게 다루어 보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중의 하나인 3D 프린팅을 이용한 탄소섬유 조형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탄소섬유를 더욱 다양하게 작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곳에 전시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5 학생들과 수업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강의 하는 수업 과목명 중에 "천재들의 혁명" 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저는 중원대학교 우리 학생들은 모두 천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분야 혹은 하고 싶은 분야 등을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융합하면서 서로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적이고 저의 즐거움입니다. 물에서는 최고인 물고기에게 나무를 오르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칠 때에 자신의 실력 발휘를 최고로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각각의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하고 다양한 관심분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융합의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제 교육 이상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6 최종적인 인생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안에는 많은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중원대학교에 재직하게 된 후부터 매일같이 조형물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년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탄소섬유로 만든 최초의 상징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중원人 – 정의준 동문



우리 대학의 동문 정의준 소위가 '19년 최정예 300전투원 Top Cadet'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탑 카뎃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을 텐데 멋지게 돌아온 정의준 소위! 그의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민혁 기자 1010hmh@naver.com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졸업생이자 이번 학사사관 64기 Top cadet으로 선발된 3교육대 146번 사관후보생 정의준입니다.

Q Top cadet으로 선발되셨는데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Top cadet은 제가 사관후보생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저의 불타는 열정과 노력,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학생군사학교 생활 초반에 제가 바라보는 Top cadet은 너무 높아서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체력검정, 사격, 독도법, 40km 행군을 포함한 모든 과목들이 목표였으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몰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급전사를 달성하였고 Top cadet 선발 대회에 자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교육대 교관님들과 동기들의 힘을 업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Top cadet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없으셨나요?

Top cadet이라는 목표가 생긴 후 강도 높은 훈련과 식단 조절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중간에 있던 포상 외출 때도 저는 학군교 옆에 위치한 저의 모교 중원대학교에서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Top cadet 선발대회 첫째 날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시험에 임했고 덕분에 체력측정, 사격, 독도법 과목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저 혼자만 20km 급속 행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학사 64기에서 Top cadet이 배출되는가의 문제여서 걱정과 부담에 잠을 설치기는 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제 옆을 지켜주시는 교관님들과 꼭 합격하라는 동기들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도전하는 급속 행군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동기 없이 혼자서 하는 싸움이었기에 외롭기도 했습니다. 도착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저의 눈앞에는 3교육대 동기들과 단장님, 교관님들께서 열렬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벅찬 감동과 이 날을 위해 고생했던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맙기도 했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믿어주신 교관님들, 후보생 식당에서 고기 한 점 챙겨주며 자신의 일처럼 응원해준 안전요원 동기들과 가족, 친구들, 저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Top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점은 항상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중원대 학우분들도 자신의 목표를 가지며 학교생활을 한다면 분명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것으로 성취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육군 소위 임관의 목표를 이루고 다른 목표를 찾아 떠날 것이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장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원대 후배들과 제 미래에 항상 밝은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R 토크쇼

중원인 고민상담

안녕하세요

다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나만의 고민 한 가지씩은 다들 있으시죠?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JR과 함께 고민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연자의 고민 들으러 가실까요?

김유진 기자 djigj486@naver.com



사연자의 사연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버리는 것을 무척 아까워하는 성격이에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샌가 짐이 점점 늘어나고, 수납공간은 부족해서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들이 제 공간을 점령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물건들이 무질서하다 보니 청소해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청소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JR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ㅜㅜ

JR의 고민 해결 답변

1. 새로운 물건을 쇼핑하기 전에 오래된 물건을 떠올리자.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물건의 기능을 하는 어떤 유사한 물건을 사용해 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물건도 덜 사고 정리정돈을 잘하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해요. 마음에 쏙 드는 립스틱을 보면, 화장대에 있는 비슷한 색깔의 립스틱 3개를 떠올리세요. 같은 기능을 하는 비슷한 물건들을 모아두는 것이 정리정돈의 최대의 적이에요!

2.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자. 청소를 안 하고 미루다가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쳐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어떤 종류의 청소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을 만큼만 매일 조금씩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하다보면 어느 샌가 청소가 덜 힘들게 느껴지고 깨끗해진 집안을 보며 보람도 느끼게 돼요.

3. 버리고, 버리고 버리자. 청소와 정리정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버리기'에요. 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몇 가지 규칙을 정해두고 버릴 물건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기가 더 쉬워져요~!



사연자의 사연 여드름 피부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20살 전까지는 여드름 흉터가 조금 있는 정도였는데 대학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드름이 더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덧나고 좁쌀여드름까지 생기는 바람에 제 피부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ㅠㅠ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두도 나지 않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의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JR의 고민 해결 답변

1. 얼굴을 자주 만지지 마세요. 손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얼굴을 자주 만지곤 합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자꾸 건드리게 되고, 손으로 짜게 되는데 그러면 손의 세균이 피부 염증 속으로 침투하게 되어 최악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만큼 손과 피부는 멀면 멀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2. 클렌징은 바르게 꼼꼼히!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랜 시간 클렌징에 집중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티슈를 오랫동안 문지르거나 방치하면 오히려 닦아낸 노폐물이 다시 피부로 스며들게 되므로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의 세안이나 샤워 역시 피부의 유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내에 클렌징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음은 잠깐이지만 한번 망가진 피부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피부를 햇볕에 그을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의 이른 노화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또한 많은 양의 노출은 피부암으로 이어집니다. 햇빛이 마치 죽음의 광선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보세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며 색소생성세포가 햇빛의 자극을 받아 붉은 여드름 자국을 형성하는 자국 후 홍반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선크림을 소지하고 다니며 꾸준히 발라주세요~



사연자의 사연 쓸데없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쓸데없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사소한 것도 다 고민이에요. 하나에 신경을 쓰면 끝까지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등 남까지 눈치 보면서 신경 쓰는 성격인데 어떻게 하면 저의 고민을 덜 수 있을까요. ㅠㅠ 다들 신경 쓰지 말라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게끔 다른 일을 하라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좋을까요?

JR의 고민 해결 답변

1. 자신의 능력을 키우자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 남의 시선도 덜 의식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운동, 음악, 공부 등 다방면에서 나만의 자신감이나 전문성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고민이나 남 신경 쓸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항상 나도 좋은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주지시켜서 자신의 꿈을 향해만 가시면 반드시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2. 칭찬일기를 쓰자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며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써보세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되새겼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찾아보도록 해요.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일,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다짐 등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머릿속 혼란을 잠재우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칭찬일기를 쓰다보면 어느 순간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3. 남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 목매지 않기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누군가의 기대심을 채우기 위해 너무 목매지 마세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고 남들과는 또 다른 나의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다양한 매력, 가치관, 생각 등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0호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내 교양을 부탁해





'태권도? 골프? 수영? 그런 교양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 라고 외치시는 분들,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가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 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수업 방식, 비용, 장단점 등 스포츠 교양 과목 선택의 고민, 모두 덜어줄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정보를 활용해 건강과 학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세요.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01 태권도 교양수업



최천 교수
무예경호전공

Q. 최천 교수님, 안녕하세요. 태권도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태권도는 우선 기초적인 체력을 길러 운동이 지겹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훈련한 후, 태권도의 기본적인 자세와 품새를 익힐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는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만 아이들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관절을 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인인 대학생들이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양 수업 중 하나가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수업이라면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Q. 태권도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신이 추구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대학생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섭취하는 것에 반해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운동으로 흘린 땀은 성취감과 상쾌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신체를 움직여 운동량을 높일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셔서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Q. 따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꼭 필요한 용품에는 도복이 있습니다. 발차기를 도와주는 미트, 겨루기 할 때 입는 호구 기구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에서 제공하고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호학과 19학번
안상준

Q. 태권도 수업을 통해 자신에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매일 해야 할 공부량, 병원 실습, 2학년까지 채워야 할 필수 교양 학점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교양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고 결릴 때가 참 많았는데, 태권도 교양 수업을 들은 후에는 몸도 가벼워지고 체력도 생겨서 이젠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품새를 배우며 학업과 대인관계, 스펙 쌓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02 골프 교양수업



박금숙 교수
스포츠지도전공

Q. 박금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골프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기는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실기 수업은 레벨별로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1:1 방식의 개인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특별하게 매주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골프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히 성장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골프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골프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종목으로 비용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원대는 골프를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골프를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개인 지도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어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주저 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따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용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골프채와 골프공은 모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용품이므로 추가비용은 0원입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골프 장갑, 골프 신발, 골프 클럽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으로 인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3학번 정철현

Q. 골프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있나요?

TV 프로그램에서 골프선수들이 스윙하는 모습에 반해 한번 골프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비싼 스포츠라고 생각되어 중고등학생 때는 도전해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골프 교양 수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Q.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나요?

골프는 타수의 많고 적음으로 우열을 겨룬다는 간단한 규칙의 스포츠이지만 무게감 있는 골프채를 휘둘러 공에 맞추고 홀 안에 넣는 과정을 통해 많은 체력과 인내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세를 구현하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03 수영 교양수업



송은일 교수
무예경호전공

Q. 송은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영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론 수업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수영 시작 전 지상에서 발차기 연습을 충분히 한 후 실력에 맞게 레인 배정 후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총 3개의 레인을 사용해 1번 레인은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서툰 학생들, 2번 레인은 수영을 배운 적이 있거나 기초가 잡혀있는 학생들, 3번 레인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대회를 나갈 정도의 실력이 있는 학생들로 나눠서 수준별로 수업합니다.

Q. 수영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배우기 힘듭니다. 다음 학기에 꼭 신청하세요!



스포츠산업전공
19학번 윤혁중

Q. 수영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첫째, 즐겁게 교양 점수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심폐 지구력 등의 기초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고 발장구를 열심히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타파됩니다. 무엇보다 멋진 골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풋풋한 동아리와 함께 추억 만들기

NEW 동아리 소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여줄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진 않으셨나요? 그럴 땐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즐기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지만 자세한 정보를 몰라요!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풋풋한 동아리 두 곳을 소개합니다.

조연정 기자 44686@naver.com

밴드 동아리 라온

가입문의 : 김세희 010-5794-7970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원대학교에 유일무이한 밴드부 동아리 라온입니다. 라온 동아리 안에는 밴드부와 오케스트라부가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소개를 하러 나온 저희는 밴드부입니다. 저희 라온은 보컬,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합주를 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나 공연을 준비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무대를 준비합니다. 또한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Q.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 라온은 밴드부답게 주로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고 합주하는 활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서로 합주도 하면서 재미있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원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 보컬,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파트와 총무와 매니저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Q. 신입부원 선발 오디션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 밴드부인 만큼 실력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우들끼리 모여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친목 활동을 즐기는 학우를 환영합니다. 오디션을 진행할 때 각 파트에 맞는 보컬 또는 악기 실력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밝은 성격과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주세요. 웃음^^

Q. 동아리의 목표나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저희 밴드부가 신설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동아리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라온 밴드부가 중원대학교에서 중심이 되는 동아리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교내 버스킹이나 공연을 통해서 학우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 것, 방학 중 음악MT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회가 된다면 저희 동아리 이름으로 된 앨범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D

Q.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장으로서 좋은 동아리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다들 실력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아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좋은 동아리라고 자부합니다. 동아리 방에 모여서 동아리원들과 하나의 곡을 정해서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고 뿌듯합니다. 특히 5월에 있었던 중원대 축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동아리원들끼리 단합하고 더욱 가까워져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라온 밴드부가 좋은 무대로 찾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치어 리딩 차오름

가입문의 : 남예지 b2uty6574-카톡아이디





Q.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차오름은 중원대학교의 치어리딩 동아리이며 '박차고 힘껏 날아오르는 기상' 이라는 동아리명처럼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친구들로 구성된 신생 동아리입니다.

Q. 차오름 동아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동아리는 회장, 부회장, 단장, 부단장, 총무 그리고 홍보부 4명과 나머지 부원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저는 차오름을 만든 회장으로 동아리 운영 부분이나 연습, 부원 통솔 등 동아리의 총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도 저를 도와 동아리 운영과 연습 등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핵심은 단장, 부단장으로 실제 치어리딩 유경험자인 친구들입니다. 연습할 곡을 단장과 부단장이 상의해서 고르고 부원들의 연습을 돕고 수정하는 등 동아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회비나 공연비 등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총무가 있으며 동아리 홍보용인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홍보부 4명이 있습니다.

Q. 신입부원 선발 오디션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공연을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격한 동작이 굉장히 많고 체력 소모가 많아서 오디션 보러 오신 분들이 체력이 튼튼하신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리딩이나 댄스부 등 춤 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습득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부원들과 속도도 맞출 수 있고, 동작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오디션을 진행할 때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정과 에너지! 앞서 말했던 것들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동아리활동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Q. 동아리의 목표나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대학교마다 학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응원단이 있듯이, 저는 저희 차오름 역시 시간이 지나 중원대학교를 대표하는 응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노력하여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린다면 앞서 말한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규동아리라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 덕에 첫 공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외부에서도 공연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한 발돋움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여기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영은 기자 koh3408@naver.com

소방방재공학전공 19학번 강태현



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 소방방재공학전공 19학번 강태현입니다.

Q 소방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게 있나요?

고등학생 때 2016년 경기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 응급처치법 교육 수료증 2개소지,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 청소년 단체협의회회장상 수상, 고등학교 교내 CPR대회 전교생 1등 등 소방공무원 관련 대회는 거의 출전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응급처치인 CPR과 상처 및 골절 처치를 고등학생 때부터 접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교양수업으로 심폐소생술 강의를 수강 신청 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Q 소방공무원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실기도 중요할 텐데 체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나요?

저는 몸이 왜소하고 키가 작아서 어릴 적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 콤플렉스를 나름대로 이겨내고 싶어서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스포츠센터 헬스장을 다니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아직은 큰 성과는 없지만 3학년부터 공무원 특채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한다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신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는 신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가 있나요?

누구나가 알다시피 공무원 시험 합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꿈을 꼭 이루기 위해 소방관련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력이 성과로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겁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박은하



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외국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꿈인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박은하입니다.

Q 외국 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대학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외국 항공사는 면접이 영어로만 진행되다 보니 영어 인터뷰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해서 시간날때 마다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Q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부비법이 있나요?

저만의 공부비법이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영어 회화에 필요한 기초 영어단어와 기본 문법을 확실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부비법이지만 영어 회화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초 영어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회화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일 영어 인터뷰 답변을 만들어서 말해보는 연습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Q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입장이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남과 비교하며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또 그 속도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두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 각자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찰행정학과 19학번 한성현



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되고 싶은 경찰행정학과 19학번 한성현입니다.

Q 언제부터 경찰의 꿈을 키웠나요?

경찰은 제 어릴 때부터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커가면서 경찰의 꿈은 더 단단해졌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Q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1학년이지만 경찰 치안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인 체력 단련을 위해 수시로 특공무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단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일 연습 중입니다. 특공무술 단증도 경찰공무원 무도 가산점에 포함되니 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Q 체력관리 이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고 입학하고 나서는 경찰행정특채로 합격하기 위해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행정 관련 과목을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Q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는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 모든 학생이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간호학과 19학번 구민경



Q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라는 꿈을 꾸고 중원대학교에 입학한 간호학과 19학번 구민경입니다.

Q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많은 학업 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고 기숙사에서는 필라테스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점관리는 물론 토익시험과 컴퓨터 자격증을 틈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학점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먼저 출결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필기와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의의 중요한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고 반복해서 꼭 복습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가 잘 맞지 않아서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파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방학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기사 제목처럼 꿈을 향한 발돋움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중원대학교의 디스패치

Jungwon Reporters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중원대학교 기자단 JR 투어의 가이드를 맡은 변다원이라고 합니다. 중원대학교만의 특색 있고 재미있는 기사! 과연 누가 작성하는 것일까요? 특별하고 즐거운 기사를 누구보다 빨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중원대학교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Q 중원대학교의 디스패치, 학생기자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민혁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의 국장, 한민혁입니다.

준혁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의 부국장, 이준혁입니다.

영은 유진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으로 2년째 활동 중인 고영은, 김유진입니다.

경희 다원 현준 연정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기자단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김경희, 변다원, 임현준, 조연정입니다.

Q Jungwon Reporters, JR은 학교에서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유진 저희는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찾아가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후, 행사의 사진과 내용을 정리해 중원대학교 페이스북에 업데이트하거나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또한, 중원대학교 블로그에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업로드하며 학교 신문 기사 작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만의 특별한 기사는 어떻게 탄생하는 건가요?

민혁 우선, 저희는 매주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때는 여태까지 학보에 실리지 않은, 중원대학교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후, 각자가 맡은 기사를 작성해 매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기사가 완성되면 학보로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Q 중원대학교 기자단으로 일하면서 좋은 점, 말씀해주세요!

준혁 우선 레포트는 많이 작성해봤어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글을 다뤄볼 만한 기회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여러 기사를 다뤄보고 글을 작성하는 요령을 배워가면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발전시킨 장점은 나중에 졸업하고도 자신의 커리어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재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정 사실 사진에 관심은 많았지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구도나 잘 찍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JR에 들어오게 되면서 선배님들께 전문적인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부터 다양한 구도와 사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기사 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면서 어휘 실력이 발전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서 뿌듯한 순간도 많았답니다. 진짜 좋았던 건 축제 때 연예인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 너무 행복했어요!!!

다원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죠! 자꾸 무엇인가를 놓치고 실수하는 신입인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국장님, 저랑 웃음코드가 너무 잘 맞는 부국장님,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서 귀찮을 법도 한데 너무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영은 언니와 유진언니,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늘 귀감이 되는 경희언니, 현준이 오빠, 연정이까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Q 중원대학교 기자단으로 일하면서 힘든 점, 말씀해주세요!

준혁 새로운 학기마다 중원대학교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소재의 기사를 이미 많이 다루다 보니 새로운 소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맡은 기사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의 아이디어가 안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기사를 자주 찾아 읽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답니다!

영은 음, 저는 열심히 적은 기사가 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족해서 학교 신문에 실리지 않을 때요. 기사 하나를 작성하며 어렵게 생각해낸 아이디어, 좀 더 부드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학교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겸허히 수용하고 있답니다!

Q 중원대학교 학우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다원 아무래도 중원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학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비교과 만족도, 카페테리아 음식 선호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가 그 예인데요, 그럴 때 저희는 '중원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로 인해 기사 작성 진행이 어려워져,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던 기사가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페이스북 '중원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저희가 제보한 설문조사 요청 글이 올라온다면 귀한 시간 조금만 할애해서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보답의 의미로 기사를 2배, 3배 열심히 작성해서 더 알찬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인터뷰나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재밌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정 저는 학생기자단이라는 것이 재학생들이 하고 싶은 마음의 말들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자단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더 많은 학생의 얘기를 듣고 대신 전해주고 싶어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 분들의 많은 참여와 용기 있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얘기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더라도, 학우 분들께서 관심 있게 학보를 읽어주지 않으신다면 기사를 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하고 학우 여러분들이 읽는, 진정한 의미의 '학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Q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으로서 다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민혁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해도 넘쳐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진 기자단 친구들입니다. 어떤 기사를 작성해야 학우 여러분께 더욱 유익하고 도움 되는 정보일지 항상 고민하는 모습에 저 스스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누구보다 한발 앞서 중원대학교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언론 기자단 JR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혁 지루한 기사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밌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기자단 친구들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더 재미있고, 더 신선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기 넘치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중원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작성한 기사를 읽고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느낌이 팍팍!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언제나 열심히 임하는 언론 기자단이 될게요!

다원 중원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녹아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현준 학우분들이 기자단을 봤을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무엇이든 제보하고 싶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정 경쟁률이 엄청 높았을 텐데 그걸 뚫고 뽑아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선배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더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D

공부의 신神

공부의 새로운 방법



학기가 시작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성적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학우분들, 참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성적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성적 향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를 향해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 함께 출발~!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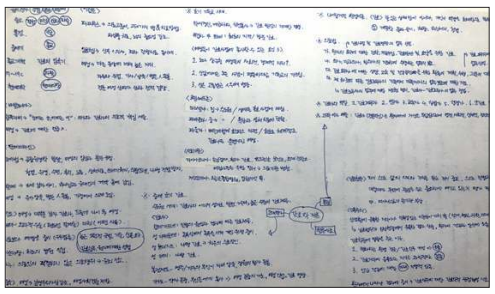
“ ‘파란 펜’ 공부법 ”

‘파란 펜’ 공부법은 파란색의 펜을 이용해 암기할 내용을 ‘깜지’처럼 적으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시각에 파란색이 들어오게 되면, 기억력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공 서적이나 프린트 등 검은색으로 적힌 글자만을 보다가 파란색으로 적힌 글자를 보게 되면 기억력을 높이는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시윤 간호학과 19학번



저는 SNS에서 처음 ‘파란 펜 공부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파란 펜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을 무작정 적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깜지를 작성했는데요, 중간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정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란색 잉크 펜을 준비해 시험 기간에 이 잉크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니 학습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 있었답니다. 잉크를 모두 사용한 파란 펜을 모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정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시윤학생 파란색 펜 필기노트.

“ 7번 읽기 공부법 ”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공부법에는 순서에 따라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읽기 각 장의 제목, 항목별로 표제와 부제를 의식하며 전체적 구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한다.
2, 3번 읽기 책 전체를 세밀하고 자세하게 읽는다.
4번 읽기 문장 속의 키워드를 의식하며 읽는다.
5번 읽기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설명문을 의식하며 읽는다.
6번 읽기 정답을 찾아본다는 감각으로 읽는다.
7번 읽기 머릿속에 덜 들어온 듯한 내용을 찾아 해당 부분만 골라 읽는다.

그리고 이 공부법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 바로 ‘3번 읽기까지는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인데요.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도리어 잡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3번 읽기까지는 윤곽선을 그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이 공부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강성덕 전기전자공학과 18학번



저는 국립도서관에서 야마구치 마유의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통해 이 공부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읽기만 하는 공부법이라니! 저도 처음에는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읽는 횟수에 따라 유념해야 할 규칙을 지키며 읽으니 정말 내용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7번째 읽기에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쓰면서 공부하는 게 싫은 학생, 외워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마음이 급한 학생에게 정말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 만다르트 계획표 ”

(mandalart)



‘만다르트 계획법’은 일본의 괴물 투수 오타니 쇼헤이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가 고등학교 때 세운 만다르트 계획법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가운데에는 중심 목표를 적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저의 만다르트 계획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점 A^+ 받기’로 설정하고 중심 목표에 관한 세부 목표 8개를 정해 중심 목표를 둘러싸도록 작성합니다.

변다원 간호학과 19학번



간호학과인 저는 전공 4과목과 교양 4과목, 총 8과목의 강의 명을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8가지의 노력을 할 것인지 적어주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7번 읽기’와 ‘파란펜 공부법’을 제외하고도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과제는 열심히, 전공 서적을 참고해 이해하기, 마인드맵 그리기, 나만의 노트 만들기, 친구 가르치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짠~ 정말 쉬운 방법으로 계획표가 완성되었죠. 공부에 임할 때, 하나의 공부 방법이 끝나면 바로 다음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미리 다 계획해두니 촉박한 시험 기간에 시간 낭비 없이 순조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을 8가지 방법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실수 없이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만다르트 계획표의 큰 장점으로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 2019학년도 공개채용 최종합격! 짝짝짝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1학번 강형준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목표로 학년 말에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전공으로 듣는 수업 외에도 전기기사 스터디, 캡스톤 수업, 솔라기능경기대회 등을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다양하게 쌓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기업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원대 학우들 파이팅!!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3학번 강병수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대회 및 공모전에 참가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교수님 지도하에 전기기사 스터디도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생활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4년의 대학생활을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비교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비교과교육과정 잘들 활용하고 계시나요? 아직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교과가 인기가 좋은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비교과의 궁금증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JR언론장학기자 임현준 lhj960918@naver.com

비교과교육과정이란?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인재상 및 핵심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F FORTE 창조적 전문인으로서 비판적 사고, 융복합적 사고,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 O OPEN 진취적 개방인으로서 외국어 구사능력, 의사표현능력,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 S SERVICE 실천적 봉사인으로서 진취적 도전정신, 봉사정신, 윤리의식 등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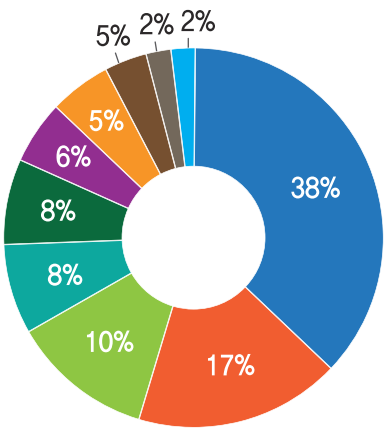
비교과 신청방법

1. 중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2. 주관하는 부서로 직접 가서 신청!
3. 전화로 문의 후 신청! ☎043-830-8133
   ☎043-830-8125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의 비교과 이수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비교과는 무엇일까요?

1. 온라인 프로그램 - (113표)
2. 해외 인턴 취업하기 - (51표)
3.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 (31표)
4. 힐링존(생활심리검사 및 해석) - (25표)
5. 학습플래너 작성 - (23표)
6. 오픈상담- 식물심기,미술치료 - (19표)
7. 독서인증제 - (16표)
8. 진취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UCC, PPT, 리포트, 학습법 에세이) - (11표)
9. 또래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 (7표)
10. JW 창업역량강화 캠프 - (6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1위와 2위의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1위 온라인 프로그램!!



Q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윤준식입니다.

Q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A 온라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손쉽게 접근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일본어, 상황영어, 사고와 표현 인간관계에 관련된 수업들이 있습니다.

Q 학생들이 더 많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증설할 생각 없으신지?

A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에 도움 되는 과정을 개발 중입니다.

Q 추가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비교과 있으신가요?

A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UCC나 PPT,리포트 등의 경진대회를 참가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A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상장 및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2-403으로 오셔서 저희 센터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위 해외 인턴 취업하기



Q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취·창업지원센터 문송이입니다.

Q 해외 인턴 취업하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A 국내가 아닌 해외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외의 여러 기업을 연결해서 트레이닝도 시켜드리고 쉽게 외국 기업과 접근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Q 해외 인턴 취업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먼저 기업측에서 해외트레이닝을 1년 정도 도와주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스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도 보조가 되어 해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Q 추가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비교과 있으신가요?

A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취업동아리나 창업동아리를 추천해드립니다. 활동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지원금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A 취·창업지원센터에는 여러분이 의지로 참여만 한다면 받아갈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저희 센터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Q&A

1 시간을 모두 못 채울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모두 못 채우실 경우 졸업조건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2 듣고 싶은 과목이 수업시간과 겹치거나 귀가로 인해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비교과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건의사항

3 비교과를 신청하고도 장소나 시간 등 공지가 잘되지 않아서 찾아가기가 힘들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게 비교과만 담당하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4 온라인 비교과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0호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미슐랭 in JWU 2

중원대 카페테리아 BEST



가끔은 대학교 학식 말고도 특별한 한 끼를 먹고 싶진 않으신가요? 항상 다른 메뉴들로 우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중원대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한 끼 든든히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의 카페테리아는 작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저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어떠한 음식들이 중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연정 기자(4468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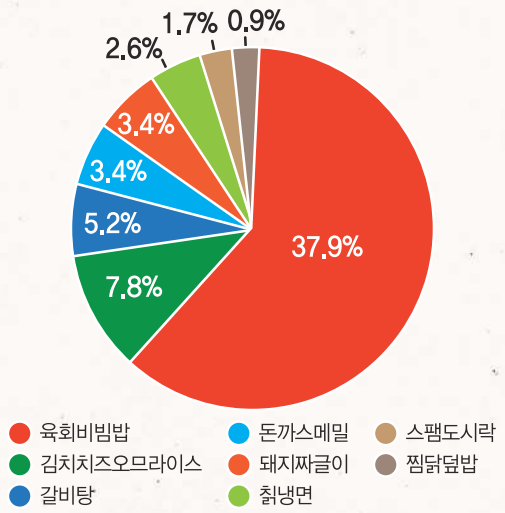
01 한식 총 116명 응답

무엇보다 다양한 메뉴로 매일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의 대표는 바로 한식!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가장 맛있는 한식 메뉴를 소개합니다.

다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육회비빔밥이 37.9%로 1등을, 2위와 3위는 김치즈 오므라이스(7.8%)와 갈비탕(5.2%)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육회비빔밥이 선택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가성비가 좋고 육회 신선도 역시 학교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학식에 비해 신선도가 높다고 하였고, 김치즈 오므라이스와 갈비탕은 한 끼 식사 든든히 하고 싶을 때 먹으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돈까스 메밀과 돼지 짜글이(3.4%), 칡냉면(2.6%), 스팸도시락(1.7%), 찜닭덮밥(0.9%)가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1등을 거머쥔 육회비빔밥 (★★★★★) 다양한 야채들과 신선한 육회가 뒤섞여 입 안에서 사르르... 환상의 맛!

또한, 선택지에 없는 카페테리아 한식 메뉴들 중에는 반계탕, 고구마 치즈 돈가스, 육개장, 부대찌개, 김치 볶음밥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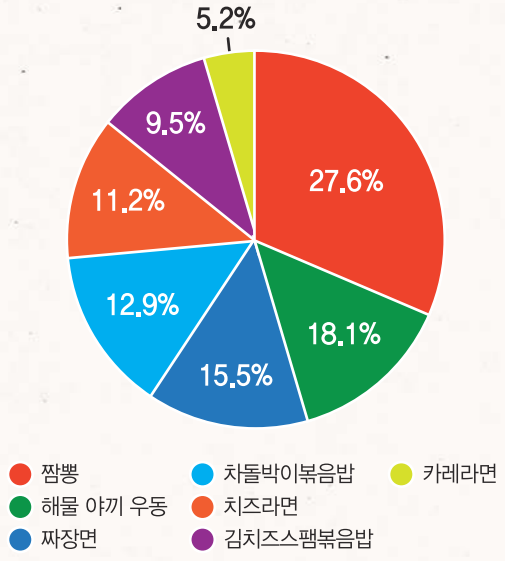
02 중식 총 116명 응답

다음으로는 한식만큼 자주 변하지 않지만 비슷한 메뉴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테리아의 중식인데요.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가장 맛있는 중식 메뉴를 소개합니다!

중식은 짬뽕이 27.6%로 압도적인 1위를 영광을 거머쥐었는데요. 뒤를 이어 2위와 3위는 차례로 치즈 라면(18.1%), 김치즈 스팸 볶음밥(15.5%)이 차지했습니다. 짬뽕은 짬뽕 그대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약간 변형된 치즈 볶음 짬뽕과 고기 짬뽕, 차돌박이 짬뽕 등도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치즈 스팸 볶음밥은 항상 중식의 대표 메뉴로 자리하여 있던 만큼 꾸준한 인기를 끌었고, 치즈 라면을 뽑은 대다수는 맛도 있지만 해장용으로 딱 좋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순위권에는 없지만 차돌박이 볶음밥(12.9%), 해물 야끼 우동(11.2%), 짜장면(9.5%), 카레 라면(5.2%)도 학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중식 메뉴로 손꼽혔습니다!

짬뽕 (★★★★★) 간단히 먹기 좋은 음식! 면만 먹기에는 허전하다 싶을 때 얼큰한 국물에 밥도 함께 먹으면 한 끼 뚝딱!

또한, 선택지에 없는 카페테리아 중식 메뉴들 중에는 깐쇼새우, 양장피, 고추잡채 덮밥, 카레라면, 순두부 짬뽕밥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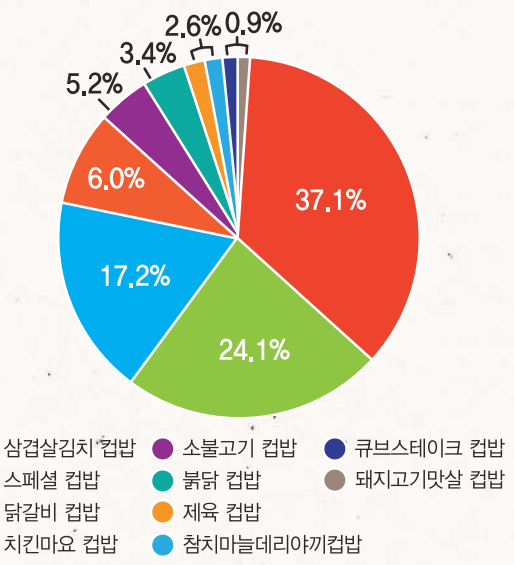


03 컵밥 총 116명 응답

마지막으로는 수업과 과제에 끼니 챙길 시간이 없는 학생 분들이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든든하게 먹기 좋은 컵밥입니다. 종류가 많은 만큼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원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컵밥을 가장 선호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는 스페셜 컵밥이 1등을 거머쥔 반면, 올해는 삼겹살 김치 컵밥이 37.1%로 1등, 스페셜 컵밥과 닭갈비 컵밥이 각각 24.1%와 17.2%로 2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삼겹살 김치 컵밥은 고기와 김치의 조화가 일품으로 적당히 매콤한 맛이 혹시나 질릴 수 있는 느낌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스페셜 컵밥은 여전히 꾸준한 인기로 다른 컵밥들이 질릴 때 스페셜 컵밥을 먹으면 좋다는 재치 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닭갈비 컵밥은 다른 컵밥에 비해 더욱 맛과 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뒤이어 치킨마요 컵밥(6.0%), 소불고기 컵밥(5.2%), 불닭 컵밥(3.4%), 제육 컵밥, 참치 마늘 데리야끼 컵밥(2.6%), 큐브 스테이크, 돼지고기 맛살 컵밥(0.9%) 순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삼겹살 김치 컵밥 (★★★★★) 삼겹살과 김치는 실패할 수 없는 조합! 맵지도 않아서 간단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딱 좋은 컵밥!



이상 중원대학교 카페테리아의 한식, 중식, 컵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더 원하는 음식, 카페테리아에 바라는 점들이 있다면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중원대학교 학생 기자단 JR로 연락 주세요.

중원대학교와 함께 지나온 10년

그들의 이야기



우리 중원대학교가 올해 10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JR 학생기자단이 10년 동안 중원대학교 역사와 함께한 직원, 교수님, 학생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역시 중원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네 분의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준혁 기자 5075379@naver.com

01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는 학생들의 나침판, 김형수 교수님!



김형수 교수님 (전기전자공학전공)

Q 중원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벌써 우리학교가 개교한지 10년이 되었네요. 제가 여기서 일해야 되는 기간의 절반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중원대학교가 되길 기원합니다. 같이 고생하는 모든 학생, 교직원,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Q 중원대학교와 10주년을 함께 하셨는데 10년 동안 중원대학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저희 학교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설 좋은 것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하지만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겉에 입은 옷이여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느냐 인데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발달하면서 체계를 갖추고 그 와중에 학과 변동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잘 잡고 뚜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저런 불만들이 또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도하는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잘 이끌어 가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해도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강한 대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중심 대학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중원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중원대학교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잘 살자입니다. 공부하기 힘들다 하는 학생들도 우리 대학에 오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엔 저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하는 과정까지는 힘이 들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기 참 잘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대학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 중원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직원선생님들, 학생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겁니다. 개개인이 아닌 다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중원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Q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제가 개교할 때부터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학문은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매번 배우고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학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공대생이라면 당연히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을 1~2학년 때 충분히 갖추고 3~4학년 때는 실무적인 일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경쟁력은 '인성'입니다. 결국엔 자기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거짓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힘든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다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학력도 좋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2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상호 경비원 선생님!



이상호 선생님 (총무팀)

Q 중원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20년, 50년, 100년 그 이상을 기대해봅니다.

Q 중원대학교와 10주년을 함께 하셨는데 10년 동안 중원대학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학생 수라고 생각합니다. 개교 당시 적은 학생 수와 비교하면 현재는 6000명에 가까운 학생으로 인해 생동감이 넘쳐 보입니다. 매일 학생들이 교문을 지날 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밝고 희망찬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중원대학교를 보고 싶습니다.

Q 중원대학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교육에 있어 인성이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졸업생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따뜻한 성격과 인성을 지니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인성 교육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중원대학교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했듯이 앞으로도 또 다른 역사를 쓰는 중원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Q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중원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건강하고 바르게 학교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대학교생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준 높은 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03 중원대학교의 반가운 얼굴, 매점의 꽃 이광희선생님!



이광희 선생님 (상생중원)

Q 중원대 10주년 축하 한마디

학교가 벌써 10주년인가요?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에 약간은 슬프네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렇게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힘써 온 직원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Q 중원대학교와 10주년을 함께 하셨는데 10년 동안 중원대학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외관상의 변화요? 기숙사가 증축된 것,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1호점에 이어서 2호점으로 확장된 것.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09년에는 사실 매점, 식당, 그리고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외에 다른 부대시설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졌지만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Q 중원대학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에 이정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첫 방문객 뿐 아니라 몇 번 오셨던 분들도 길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방향 표지판이 몇 군데는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건물 내에 화장실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데, 좁은 화장실 하나뿐이라서 마비될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동시설을 내 집처럼 깨끗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생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매점 앞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꼭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개교 첫 해에는 입학생이 200명 남짓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방문객들이 학교에 학생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학생들 없는 주말에는 특히 휑하고 쓸쓸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학생들로 북적북적 붐비고, 활력이 넘치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기운도 나고 좋더라고요.

Q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학생, 직원 가리지 않고, 인재 양성에 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기운 나도록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분위기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못 찾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소극적인 학생들도 하나하나 살펴서 잠재력을 잘 끌어내주는 역할을 학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4 꿈을 향해 두 번째 도전중인 신광철 학우!



신광철
간호학과 15학번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 개교와 함께 09학번으로 입학을 하였고, 제3대 총학생회장을 맡았으며 15년 2월에 첫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2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17년도에 다시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두 번째 졸업을 준비 중인 간호학과 4학년 신광철입니다.

Q 중원대학교가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인터뷰에 참석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 함께 해온 중원대학교 일원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원대학교의 전진과 화합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개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원대학교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중원대학교 일원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중원대학교와 10주년을 함께 하셨는데 10년 동안 중원대학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마다 변화가 느껴지는 역동적인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너무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고 진짜 대학교가 된 느낌입니다. 260명이 전부였던 09학번 시절에는 전교생 모두 서로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중원대학교 인지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09년도에는 중원대학교 다닌다고 하면 중국에서 유학 하냐며 많이들 되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중원대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주 뿌듯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말하려니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얘기를 다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다음에 인터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비해 좋은 점도 있고 분명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발전과 변화 중에 있다는 점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원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학생으로 바라는 점과 졸업생으로 바라는 점 두 관점에서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빠른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에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학생을 위해 해결하고, '학생 만족'을 넘어 '학생 감동'의 중원대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부터 학과 학생회 그리고 동아리에 대해서도 지원이 대폭 늘였으면 합니다. 저도 총학생회를 해봤지만 총학생회 공약이 곧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점입니다. 공약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공약을 선정합니다. 학교에서도 총학생회 공약을 보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생의 입장에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은 어머니의 출산과 같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출산이 출산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지듯이 모교와 졸업생의 관계는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듯이, 모교가 위태로우면 동문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모교가 잘되면, 동문 졸업생들은 자랑스럽고 더욱 모교가 잘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교(母校)라고 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졸업 후 대다수 졸업생들이 이러한 모교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졸업생과 학교가 서로 노력하여 모교와 졸업생들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면 좋겠습니다.

Q 향후 10년, 20년 후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학교의 발전은 결국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과 환경을 마련해 주더라도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히 하여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다보면 학생과 함께 학교도 자연스레 발전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로 본 10년 중원의 어제 오늘 내일

2009



이때는 이런 머리가 유행이였나요? 지금은...상상도 못하는...그래도 열심히 응원하시는 선배님들 멋지십니다.



제1회 체전우승 단대를 소개합니다!



선배님들의 피구실력 한번 보실까요?

2010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빅매치 네요. 누가 이기셨을까요?



2010년도 응원사진입니다. 지금은 모두 졸업하셨겠죠???



선배님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기셨겠죠?

2011



선배님들의 응원열기 후끈합니다!!



2011년도 이어달리기 우승자는 바로 나~



옛날의 축구대회는 유니폼이 필수인가 봅니다.

2012



도라에몽과 선배님들의 신나는 댄스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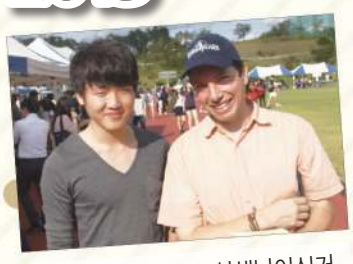


협동심을 다지는 선배님들의 단체줄넘기!



알록달록한 예전의 체전응원 현장~

2013



이분이 바로 메튜 선생님이신거 아시나요~?



선배님께서 만드신 솜사탕! 그 맛이 궁금합니다~



13년도 교수님들과의 축구한판!!



6년 전에는 전통 차 체험도 있었군요.



신나는 댄스타임 못 봐서 아쉽네요.

2014



산이와 함께 Put your hands up~



저 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님이 너무 부러워요!



5주년 축제 개회식 현장!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네요.



응원 피켓까지 준비한 선배님들의 우승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도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똑같네요.

2015



2015년도에도 인사대 선배님들 열정이 대단했네요!



사진으로만 봐도 핫~뜨거 뜨거~ 날씨보다 더 뜨거운 선배들의 열정!



선배님들의 멋진 포스만으로도 국가대표 급!



인사대 선배님들의 하트에 제가 반할 것 같아요.

2016



융합과학기술대학 선배님들, 가면 뒤에 가려진 포스가 느껴지네요!



레드 삼총사 선배님들! 열심히 응원하시는 열정 저희가 가져갈게요~



늦었지만, 우리도 선배님들에게 건강 체크 받고 싶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멋진 댄스 공연으로 당시 축제를 빛냈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엔 마마무가 우리 대학에 왔었군요! 다시 와주세요~



3년 전에도 체전 입장식을 관람하기 위해 관중석을 꽉 채웠네요!

2017



ENT부스 앞에서 교복 입고 찰칵!



풍선 빨리 불기 대결을 해요! 우승 상품은 무엇이었을 까요?



명불허전! ENT 무대 정말 신나요!



전년도 우승대학 인문사회대학이 입장합니다!



푸우와 짱구 옷을 입고 있는 선배님들! 졸업하셨나요? 다시 보고싶네요~

2018



어느 것이 진짜 총일까요? 항공대학 선배님들의 멋진 총쏘기!



항공대 마스코트는 꿀벌? 체전에서 꿀처럼 달콤한 우승하길 바래요~~~



피구 우승 저희가 할게요!!



축제에는 푸드 트럭이 빠질 수 없죠? 내년에는 어떤 푸드 트럭이 올까요?



우리의 소원을 적어 보아요! 여러분들 소원은 다 이루셨나요?

2019



농구경기 명장면! 멋진 농구경기를 보여주신 선수분들에게 박수!



2019년도 씨름 우승자는 나야 나!



게임도 하고, 추억의 불량식품도 먹고 가세요~



어떤 상품을 뽑을까요? 2019년 새내기 여러분! 이번 체육대회 즐거우셨나요.



올해의 마카롱 부스 어떠셨나요? 마카롱 정말 맛있어요!



선배님들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팥빙수 버-억!



감미로운 벤의 목소리가 더해져 중원대 10주년 축제를 빛내 주네요~



1등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2019년도 노래자랑 1등 스타분들입니다!



사진 공모전 출품작 모두 정말 멋져요! 누가 1등을 차지했을까요?